

## 2015 ICID 몽펠리에 회의 참가기

### 자유와 낭만과 사랑이 있는 그곳, 프랑스 몽펠리에



이 난 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과장  
KCID 전 사무국장  
nhlee@ekr.or.kr

#### 멀고도 먼 프랑스

서울에서 파리까지 장장 11시간, 또 4시간을 기다려 드골공항에서 국내선으로 1시간 반을 날아 몽펠리에 공항에 도착,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숙소에 도착했다. 거의 하루만에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밤늦게 도착한 몽펠리에에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야경이 우리를 차분하게 반겨주었다.

우리가 유럽 여행 중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는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하며, 유럽에서 3번째로 큰 나라이다. 면적은 643,801km<sup>2</sup>로 한반도의 2.5배에 달하며, 인구는 66백만명으로 세계 21위가 된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는 유럽 최대 농업국이자 유럽에서 유일하게 식량자급을 하는 국가로 밀수출 국가이다. 주요 농업 수출품목으로는 포도주, 곡물, 유제품, 육류 순이며, 수출대상국은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등이라고 한다.

필자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축구 국가로 발전한 궁금증이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어느 정도 풀렸다. 시골조차도 야간 조명이 있는 축구장들이 많으며, 유치원부터 축구 코치가 있는

축구장들이 많아 축구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다.

현장 견학중 창문 너머 보이는 프랑스 농촌 풍경은 넓디 넓은 초원에 농사를 짓지 않는 밭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옥수수대 대들이 추수를 끝냈는지 군데 군데 널려 있고, 가끔 양떼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모습은 분명 우리의 농촌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저 광활한 대지에 왜? 농사를 짓지 않을까?

높지 않은 야트막한 야산들에 키작은 나무들이 많으며, 바람이 많은 프로방스 지역의 고속도로는 우산 모양의 소나무 방풍림이 가로수로 수십키로 심어져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 자유와 낭만과 사랑의 도시 몽펠리에

낭만과 편안함을 주는 도시 몽펠리에!

도시 전체가 인간을 압도하지 않고 인간에게 맞추어진 느낌을 주는 도시, 3층 이상 건물이 없으며, 도시 전체가 공원 같은 느낌, 여러 인종(흑인, 백인, 아랍인 등등)이 함께 어우러져 아무 불편함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도시 몽펠리에. 타인에 대한 톨레랑스(관대, 관용)가 강한 도시 몽펠리에... 전형적인 남프랑스의 지중

해 날씨가 사람들을 톨레랑스하게 만드는 걸까? 젊음이 뿜어내는 활기와 정돈된 분위기를 모두 느껴볼 수 있는 몽펠리에. 몽펠리에 인구는 48만 명. 그중 유독 젊은 사람이 많다. 몽펠리에 인구의 1/4이 대학생이고 인구의 절반 정도가 30세 미만이라고 한다. 몽펠리에에는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사랑 표현이 자유롭고, 생기가 넘쳐나 보인다. 마치 우리나라 대학가의 혼한 풍경처럼, 약속을 기다리는 학생들이나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과 자주 마주칠 수 있다.

안 파는게 없을 정도로 골목골목 상점들이 많다. 에르메스, 몽블랑, 레페도, 판도라 등등 유명 브랜드 상점들이 많다. 한국의 유명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가 현지에서는 골목길 여기저기



자유와 생기가 넘쳐나는 몽펠리에 콩코드 광장



식사 및 차를 마시며 여유로움을 즐기는 노천카페 풍경

에 아무도 다닐 것 같지 않은 이런 골목길에 있었구나... 웃음이 난다.

##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몽펠리에

프랑스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미술관 중 하나라고 하는 ‘파브르 미술관(Musee Fabre)’ 등 고풍스러운 전시관들은, 몽펠리에가 ‘지식과 예술로 이루어진 고상하고 문화적인 도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개선문 근처에서는 네오 클래식 건축물들을, 신도시 구역인 안티곤 구역에서는 초현대식 건축물들을 만날 수 있어 과거와 현재를 모두 느껴볼 수 있다는 점 또한 몽펠리에만의 특별한 매력이다.

도착 첫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날이라 참가자들은 각자의 자유로운 일정으로 몽펠리에 시내 관광을 즐겼다. 지중해 기후의 하늘 색깔이랑 바다 색깔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국에서는 보기드문 날씨를 찬탄(?)하며 망중한을 즐겼다.

파리의 개선문보다는 자그마하지만 더 오래된 역사를 지닌 몽펠리에의 개선문을 지나 1689년에 지어졌다는 탁 트인 풍경의 페루 왕실 광장에 도착하면, 루이 14세의 동상과 ‘물의 성’이 자리하고 있다.

물의 성 뒤편으로는 길이가 무려 880m에 이르는 로마식 수교를 만날 수 있다. 18세기,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해 주었던 로마식 수로교 ‘생 클레망 다리(L'aqueduc Saint-Clement)’는, 금번 ICID(국제관개배수) 회의에 참석한 전세계 물관련 관계자들을 환영해 주는 듯 하였다.

몽펠리에를 비롯한 님프(투우장이었던 아레나), 아비뇽 다리, 가르강, 로마시대에 만들어 졌다는 풍뿔가르(Pont du Gard) 수로교(샘의 원천) 등 유독 물관련 유적이 많은 남프랑스에서 관개·배수 회

의가 두 번씩이나 개최된 사실은 물이 그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그 의미가 예사롭지가 않다.



파리의 개선문보다 더 오래된 몽펠리에의 개선문



페루 광장에 있는 물의 성(城)

## 2015 ICID 몽펠리에 컨퍼런스

2003년 ICID 제54차 집행위원회의 및 제20차 유럽회의가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개최된 이후 12년 만인 올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 동안 제66차 집행위원회의 및 제26차 회의가 다시 몽펠리에에서 열렸다.

이번에 회의가 다시 열린 몽펠리에에는 남프랑스의 가장 큰 매력인 파카울만큼 따스한 햇볕, 눈부신 바다, 겨울에도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로 최상의 회의 개최지(venue)로서의 입지 조건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을 것이다.

필자 또한 그런 마음 또한 남다르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ICID 몽펠리에 회의는 집행위원회의, 유럽지역회의, 분과위원회의(워크숍, 심포지엄) 등 매년 개최되는 통상적인 회의와 라운드 테이블 회의(개발도상국 지원 등), 사이드 이벤트, ICID 관계자 회의 등 다양한 회의들로 1주일 내내 패러렐(parallel)로 개최되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각 컨퍼런스 참석, 논문 발표, 전시회 참석, 현장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전체 참가자(27명)들이 각각의 미션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특히, 우리 대표단들은 작년(2014년) 광주총회의 성공적 개최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광주총회의 추억담을 들먹이곤 했다.

몽펠리에 회의는 여느 유럽회의들이 그러듯이 정부의 도움이나 후원을 많이 받지않고 순수 등록비 예산만으로 운영된 실용적인 회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ICID 회의가 지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지 않나 싶다. 하지만 “임도 보고, 뽕도 판다”는 일거양득의 국제회의의 참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몽펠리에의 명물, 로마식 수로교  
 '생 끌레망 다리(L'aqueduc Saint-Clement)'

## KCID 대표단들의 혁혁한 활동

KCID 대표단들의 주요 활동으로는 이봉훈 회장이 총회 위원회(C-CONGR)에 참석하여 제22차 광주 총회 및 제65차 집행위원회의의 주요 결과들을 발표하였으며, 대학 및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참석한 대표들은 기술세션 및 분과위에 참석하여 논문발표 및 전시 등으로 한국의 신기술 및 연구결과들을 관련 전문가 및 참가자들에게 소개 하였다.

그 중 대학에서는 관개배수시스템 분과위(WG-IOA)·농업 물 절약 분과위(WG-WATS)에서 최경숙 교수가, 관개계획 활성화 및 현대화 분과위(WG-M&R)에서 윤광식 교수가, 농어촌연구원에서는 지속가능연안개발분과위(WG-SDTA)에서 장정렬 박사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최종대 교수(강원대), 최진용 교수(서울대), 최정훈·오찬성

(농어촌연구원) 연구원들은 각각 포스터 발표로 연구결과들을 소개하였다.

김영득 박사는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분과위(WG-CDTE)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여 향후 농어촌연구원에 신축되는 국제교육교류센터(RC-IIEEC)와 연계하여 농업·농촌 개발 및 교육·훈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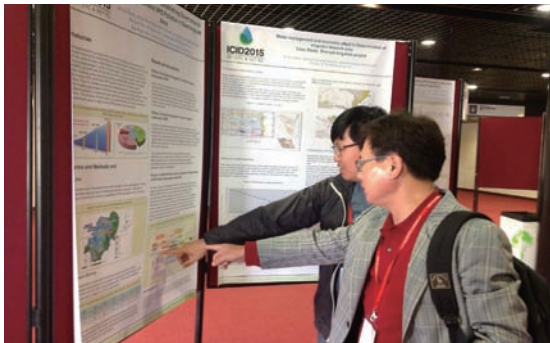
특히,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아시아지역분과회의(ASRWG)에 참석하여 “Agricultural Water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Society in Asia” 주제의 기조연설로 아시아 지역 물부족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적 협조 강화, 물관련 기술교류 등을 제시하고 동반성장을 강조하였다.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최경숙 교수(경북대)



아시아지역분과위원회 워크숍에서 기조연설(Keynote Speech)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



포스터 발표(농어촌연구원 장정렬 박사)

## 물길이 도시를 발전케 한 남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들

론강 범람으로 홍수가 심하고, 반 고흐의 생활 근거지로 유명한 아를러, 로마 교황청(1309~1377)이 와 있었던, 지금도 대성당과 아비뇽의 끊어진 다리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아비뇽.

남프랑스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이며 공업도시인 인구 90만의 최대 도시 마르세이유, 물의 도시, 학자의 도시, 농업과 미술, 예술과 조각상이 발달되고, 세잔느 미술관으로 더 유명하다. 특히 수로가

발달되어 있고, 바람이 많아 우산 모양같은 소나무 방풍림이 그림처럼 수길로 줄지어선 액상프로방스. 물과 물을 나르는 수로교들이 로마시대부터 도시마다 발달되어 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프랑스가 유럽 최대의 농업국가가 되었다 말인가?

“프랑스는 농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지만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약하다(2.1%).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농업이 찬밥 신세는 아니다. 전체 경제에서 작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농촌·농민·농업”에 대한 사랑은 프랑스의 오랜 전통이다”라는 어느 글귀에서 처럼 물과 농업, 국가 번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임에는 틀림 없는 듯 하다.



지중해성 기후로 영근 맛나 보이는 과일들



오만가지 재미난 표정의 미니어처들

## 다시 미소짓게 하는 즐거운 에피소드

유럽으로 여행을 가본 사람은 알 것이다. 유럽의 호텔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설계 되었는지? 방의 크기도, 방 안의 가구, 화장실 크기·위치 등등..

웃지 못할 일은 우리 일행 중의 한사람인 L씨는 키가 보통 사람보다는 큰 편이라 다리가 길어 호텔 객실 화장실에 앉을 수가 없어 매번 다른 곳으로 불일을 보러가는 해프닝은 듣는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하였다.

우리나라 5일장처럼 주말에만 열리는 벼룩시장은 싱싱한 과일들이 즐비하고,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지하 골방에서 나온듯한 해 묵은 중고품(second hand)이 자기를 얼른 데려가 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듯 재미난 표정들을 짓고 있다.

왜 그렇게 패셔너블한 스카프가 많은지? 프랑스가 패션의 도시인지? 나 나름의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스카프 하나면 매면 멋쟁이가 되고, 보온이 완성되는形形色색, 각양 각색의 스카프들을 파는 리어카 판매대가 여기 저기, 몽펠리에를 찾는 모든 여행객들의 집결지인 콩코드 광장 주변을 메웠다.

식사를 두 시간씩이나 하고 별바른 야외 카페에서 짹짹한 에스프레소 한잔을 시켜놓고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는 여유로운 사람들. 친절한 서비스로 카페를 찾는 손님들을 해피하게 해 주던 알제리 출신의 잘 생긴 웨이터 총각.

한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몽펠리에 대학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을 보면서, 요즘 취업이 어려운 우리 한국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젊은이의 열정을 보는 것 같아 대전함과 씩스레함이 교차되는 묘한 갈등의 순간을 맛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오래전 버스를 타면 버

스 기사 옆에서 우리의 안전을 기도하는 듯한 사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소녀의 기도(원제: 기도하는 미소년 사무엘)”라고 하는 부르는 그 사진 말이다. 이 사진의 출처가 몽펠리에 시내에 있는 파브르 미술관(Musee Fabre) 내에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어릴 적 책 갈피 속에 끼워다니던 그 소중한 추억을 다시 꺼내보면서 여행 중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만끽한 좋은 기회였다.

우리나라의 전차와 같은 트램을 타면서 무인 개찰을 잘못해 1.5유로의 20배를 벌금으로 물은 이야기 등등, 길지 않은 일주일 동안 회의 내용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인지 못할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 준 ICID 몽펠리에 회의였다.

## KCID와 농어촌공사가 함께 원-원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현장 견학지인 남프랑스 세뜨(Sete)는 어항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으로 작은 베니스라고도 하는 이 항구도시는 도시 절반 전체로 쪽쪽 뻗은 물길 이 도시를 관통하고 바다를 향해 굴 양식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 농어촌공사의 블루오션인 어촌개발 사업의 롤모델로 하면 어떨까? 하는 비전문가적인 생각도 해 보았다.

금번 ICID 몽펠리에 회의는 각 국에서 참석한 대표자들과 아시아·아프리카 저개발국의 ODA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으로 연결시키고자 각 고의 노력을 한 비즈니스 여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사 CEO를 비롯하여 KCID, 대학, 농어촌공사에서 참석한 대규모 대표단들은 아침에는 조찬모임을 주선하고, 낮에는 회의장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각국의 만찬장에서 각자의 미션으로 우리 한

국, 농어촌공사의 해외 사업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의미있는 국제회의의 참가가 아니었나(?) 자평해 본다.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주재원들을 통한 우호 인사들과의 접촉, 저개발 국가인 미얀마, 우간다 YPF를 공사 지원으로 초청을 해 국제무대에 이끌어 낸 사건 등등.. 한국농어촌공사가 세방화를 표방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세계의 물관련 전문가들에게 분명히 나타낸 만남의 장이 아니었나 싶다.

학술적으로 욕심을 부려본다면, 필자가 소속해 있는 농어촌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ICID, WWF 등 물관련 국제회의에 발표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 작성시 향후 계획까지도 명문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건의해 보고 싶은 부분이다. 특히 포스터 발표는 가급적 지양하고 오럴 발표를 지향하는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하늘색이랑 바다색이랑 똑같은 세뜨에서 참가자들과 함께..